

“이게 나라냐?” 조선의 19세기 민중봉기

민란의 시대

이이화 지음

조선이 몰락하는 마지막 100년은 '민란(民亂)의 시대'였다. 19세기의 여명을 여는 1800년, 개혁정치를 펼치던 정조의 죽음과 함께 일문 일족의 독점적 지배체제에서 사회·경제적 모순이 첨예화됐다. 결국 민중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면서 1812년 관서 농민전쟁(홍경래의 난)을 비롯해 1862년 삼남 농민봉기(진주민란), 1869년 광양 민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등 민중봉기가 잇따라 일어났다.



19세기 분출된 역동적인 민중의 에너지는 근대를 여는 기본 동력이 됐다. 1895년 2월 27일 서울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서 범부 아문(구한말 형조를 대신한 관청) 임시 재판소로 이용되는 전봉준 장군.

제야 사학자 이이화 선생이 민중의 시각에서 19세기 조선의 역사를 재조명한 ‘민란의 시대-조선의 마지막 100년’을 최근 펴냈다. 저자는 19세기를 “정치사의 관점에서 보면 혼란되거나 정체된 시기였으나 민중사에서 입각해서 풀면 새로운 사회변동이 일어난 시대였다”고 평가한다.

이 책은 ▲문벌 정치의 등장과 관서 농민전쟁 ▲성장하는 민중의식, 계속되는 민중봉기 ▲반봉건·반침략의 동학 농민전쟁 ▲의병항쟁과 평민 의병장의 등장 등 4부로 나눠 민중봉기의 원인과 결과를 세밀하게 살펴본다.

1811년 12월, 홍경래·우국척 등이 ‘관서의 난’을 일으킨다. 19세기 ‘민란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조선 후기 최대 규모였다. 서북지방에 대한 조정의 차별 정책과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에 의한 권

력독점, 삼정(三政)을 통한 가혹한 조세와 수탈 등이 원인이었다. 삼정은 토지에 매기는 조세인 ‘전정(田政), 군사경비로 거두는 ‘군포(軍布), 지방재정을 보충하는 ‘환곡(還穀)을 의미한다. 비록 봉기는 실패했지만 나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62년에 삼남지방(경상도·전라도·충청도)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그 해 경상도 18개 고을, 전라도 54개 고을, 충청도 43개 고을에서 봉기했다. 이때 민란이 삼남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 까닭은 뭘까? 원인은 삼정 문란이었다. 부패한 관리들은 규정보다 조세를 많이 받았고, 어린이와 노인들까지도 군포를 거뒀고, 환곡 역시 적게 주고 많이 받는 불

평의병장 안구홍(1879~1910)이 대표적이다.

19세기 역동적인 민중의 에너지는 근대를 여는 기본 동력이 됐다. 19세기 민란은 국정농단 정권에 맞서 ‘촛불’을 밝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저자는 “시대상황은 다르지만 19세기 민중운동사는 분명히 오늘날의 거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100년 동안 일어난 민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 알 수 있다. 부족으로 홍경래 격분과 전봉준 포고문 등을 첨부해 당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한겨레출판·1만5000원 /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평민의병장 안구홍(1879~1910)이 대표적이다.

19세기 역동적인 민중의 에너지는 근대를 여는 기본 동력이 됐다. 19세기 민란은 국정농단 정권에 맞서 ‘촛불’을 밝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저자는 “시대상황은 다르지만 19세기 민중운동사는 분명히 오늘날의 거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100년 동안 일어난 민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 알 수 있다. 부족으로 홍경래 격분과 전봉준 포고문 등을 첨부해 당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한겨레출판·1만5000원 /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소설가 대신 ‘이설가’ 꿈꾸는 아웃사이더의 전투적 글쓰기

영혼의 무기

이응준 지음

아마도 어떤 이들은 작가 ‘이응준’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소설가 신경숙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지난 2015년 그는 절충성감단 작가 신경숙의 일본소설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문단과 출판계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았다.

본인 스스로 ‘아웃사이더’의 피가 흐른다고 말하는 이응준이 20년에 걸쳐 쓴 글을 모아 산문집 ‘영혼의 무기-이응준 이설집(異說集)’을 펴냈다. ‘백병전의 기



록’인 책은 무려 8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이지만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담보한 글은 잘 읽힌다. 저자는 “이 글을 쓰면서 나의 영혼이 고난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고, “모든 진영들로부터 자유롭고자 했기에 산문가, 소설가 대신 ‘이설가’를 꿈꾸었다”고 했다.

책은 모두 7부로 나뉘져 있다. 1부 ‘보리

수 아래서’에서는 인간 이응준의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며 2부 ‘광경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들이대며 비평하고 해부한다.

3부 ‘전장에서’는 ‘문인 이응준’의 이야기다. 자신의 다양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인터뷰, 대담 등을 통해 문학관을 풀어내며 김수영 등 그가 사랑한 문인들에 대한 글들도 담았다.

4부 ‘참호에서 책 읽기’는 그의 다양한 독서 편력을 담은 책선으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천사들의 제국’, 오정희의 ‘돼지꿈’, 박세현 시집 ‘현정’ 등에 대한 글

이 실렸으며 5부에서는 그의 반려견 ‘토토’와의 이야기가 담겼다.

7부 ‘바다 위 밀봉 유리병 속에서’는 그의 내밀한 고백이 담긴 일기다. 2013년 6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의 기록이다.

작가가 6부 ‘시인 함성호씨’에서 33편의 글로 묘사한 문학 파트너 시인 함성호는 이응준을 ‘진격하는 중도와 검은 선(線)의 무사’라고 말한다. ‘갯등으로 흘러들든, 미친 농갈이 주절대단 계획들 어느 날 그는 정말 하고 있고’, ‘겹이 많아 부들부들 떨어뜨려도 바둑바둑 걸어 나가는 것’ 그게 이응준이라고도 한다. 단호하고, 전투적인 그의 글에서 느껴지는 바다. 〈비채·2만7000원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너답게 살아갈 너에게=대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 강단에 서는 스승이기도 한 이필재 기자가 청춘의 고민을 들고 각 계각층 명사들을 찾아가 답을 청한 인터뷰 모음집. 청춘의 언어로 직접 털어놓은 고민에, 우석훈·엄홍길·김태원·김수영·장해성·김미경·공병호 등 40명의 멘토들이 솔직하게 답했다. 고민할 것도, 생각할 것도 너무 많은 대한민국 20대에게 40명의 선배들이 냉정한 직설을 날렸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법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당연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자유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의롭지 못한 타인의 행동, 국가의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책은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 그 과정을 추적한다. 어렵고 딱딱한 법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한스미디어·1만4800원〉

▲참모의 진심, 살아남은 자의 비밀=중국 대륙 최고의 참모에게 배우는 ‘처신의 기술’. 5대 10국 시대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질 때까지의 70년으로, 중국 역사상 최고 혼란기로 손꼽힌다. 이러한 격변기에 다섯 왕조에서 열한 명의 황제를 보필하면서 길고 오래 즐거움을 누리던 인물이었다. 30여 년을 고위관료로, 그중 20여 년을 재상으로 지낸 풍도다. 책은 풍도가 걸어왔던 길을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일화를 활용하여 이야기한다. 〈위즈덤하우스·1만4000원〉

▲너의 세계를 지나칠 때=대륙 700만



독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심금을 울린 단편집. 중국 웨이보 블로그에 장자지가 올린 ‘잡자리에 듣기 전 읽는 이야기’ 시리즈를 엮은 것으로, 이 시대 청춘 남녀의 이야기를 담담한 감성으로 연출했다. 책 속 단편집 가운데 ‘너의 세계를 지나칠 때’,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뱃사공’ 등 10여 편이 영화화됐거나 영화화 준비 중이다. 〈은행나무·1만5000원〉

▲프로이트의 소파에 누운 경제=24세의 나이에 체코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지낸 토마스 세들라체크와 ‘푸르헤’의 편집장을 리버 탄치는 현대 경제의 위기를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론 해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 저자들은 경제를 소파에 눕혀놓고 경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심리를 분석한다. 나르시시즘부터 조울증,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도벽, 사디즘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정신질환을 폭넓게 분석하고, 정신질환의 뿌리가 되는 경쟁과 공격성의 근원을 밝힌다. 〈세종서적·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밤 한 통이 댁때글=동시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대표 시인들의 주옥같은 명편을 한데 모은 책. 유려한 운율과 생동하는 말맛,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서정 등 유년의 눈높이에 알맞은 미적 양식을 지녔던 근대 동시 중 탁월한 성취를 보인 시편을 가려 뽑고 잊혀 가는 고운 우리말 표현을 배울 수 있는 동시들을 실었다. 〈창비·9000원〉

▲나, 고릴라 그리고 원숭이 별=축국화 고아원에서 사는 아홉 살 온나가 고릴라에게 입양되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이야기다. 프리다 칼소가 쓴 이 작품은 아이의 시선으로 ‘입양’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담담히 보여 준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억지스러운 감정에 연중하지 않고 주인공의 미묘한 감정 변화에 재치와 유머를 담아서 드러낸다. 〈시공주니어·1만5000원〉



로 새롭게 펴냈다. 폭설 속에서도 산과 나무는 살아 있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화자도 살아 있다. 쉬운 언어와 뚜렷한 리듬이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지만, 어느새 시가 가진 힘이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는다. 〈바우슬·1만1000원〉

▲수상한 아이가 전화 왔다=토미는 친구랑 이야기할 때나 수업을 받을 때는 물론, 공을 차거나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도 절대로 방향을 벗지 않는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쓰고 있다. 토미가 왜 방향을 벗고 다니는지, 방향속 속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도대체 토미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뜨인돌어린이·9500원〉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매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맑은터는 풍광을 전할듯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열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